

수용자 중심의 글쓰기 교육 방향과 실제*

- 부산외국어대학교 글쓰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

김민옥**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2) 교과목 개요 및 강좌 목표 |
| 2. 교양교육 체제 속에서의 <나를 바꾸는 글쓰기> | 3) 수업 방향과 구성 |
| 3. 수용자 중심의 <나를 바꾸는 글 쓰기> 수업 사례 | 4) 수업의 구체적 내용 |
| 1) 교재 구성 | 4. 수용자 중심의 글쓰기 교육 효과 |
| | 5. 나오며 |

국문초록

200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쓰기 수업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수많은 모델을 제시하면서 대학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충실히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학생 수준에 맞는, 적용 가능한 글쓰기 모델은 끊임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여전히 각 대학의 글쓰기 교수자가 대학 실정과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방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 이 연구는 2018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만오교양대학 조교수

특히, 수업의 대상인 학생 중심의 글쓰기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글쓰기 수업에 대한 반감을 보이고 있으며, 글쓰기 수업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타당성 있는 분석이 미미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에서 진행한 <나를 바꾸는 글쓰기>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수용자 중심의 글쓰기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글쓰기 교육이 지향해야 하나의 방향과 수업의 구체적 방식을 통해 수용자 중심의 글쓰기 교육의 효용성을 알아보았다.

수용자 중심의 글쓰기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강의 첫 주와 마지막 주에 학생들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글쓰기 자가 진단을 실시하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사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미리 측정한 후 수업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사후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글쓰기 능력 향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교육 효과성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실제 수업 진행시에는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텍스트 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텍스트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텍스트 읽기와 연계하여 사고력 확장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연습 문제를 활용하여 학기 초에는 짧은 글 위주로 실습을 진행하고, 실습 이후에는 교수자가 반드시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쓴 글의 문제점을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 학생들 스스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방법이 요구된다.

주제어 : 나를 바꾸는 글쓰기, 수용자 중심 글쓰기 교육, 텍스트, 영상매체, 글쓰기 자가 진단, 학생 수준 측정, 피드백

1. 들어가며

200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쓰기 수업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수많은 모델을 제시하면서 대학 교양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충실히 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 현실과 학생 수준에 맞는, 적용 가능한 글쓰기 모델은 끊임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여전히 각 대학의 글쓰기 교수자가 대학 실정과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 방법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글쓰기 교육에 관한 연구¹⁾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
- 1) 김정자,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태도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13호, 국어교육학회, 2001; 원만희,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의 위상과 ‘학술적 글쓰기’ 모델」, 『철학과 현실』 65, 철학문화연구소, 2005; 원진숙,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작문교육방법」, 『어문논집』 51, 민족어문학회, 2005; 정선희, 「대학 글쓰기 교재 분석과 개선방안」, 『이화어문논집』 제26집, 이화어문학회, 2008; 이은주, 「대학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예술대 글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26집, 이화어문학회, 2008;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재의 분석 및 평가 준거 연구」, 『국어국문학』 148호, 국어국문학회, 2008; 박은미, 「건국대 글쓰기 영역 수업 사례 연구」, 『사고와 표현』 2집 1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9; 정혜영, 「대학의 교양교육과 학술적 글쓰기」, 『현대문학이론연구』 37,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나은미, 「대학 글쓰기 교육 연구 검토 및 제언」, 『대학작문』 창간호, 대학작문학회, 2010; 박정하, 「학술적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양논총』 1, 중앙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2010; 정희모, 「대학 글쓰기의 교육 목표와 글쓰기 교재」, 『대학작문』 창간호, 대학작문학회, 2010; 한수영, 「대학 글쓰기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방법과 성과-이화여자대학교 <우리말과 글쓰기>를 중심으로」, 『대학작문』 창간호, 대학작문학회, 2010; 김옥영,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어문학교육』 42, 한국어문교육학회, 2011; 지현배, 「대학 글쓰기 강좌의 개선을 위한 교재와 강의안 구성 시론」,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오태호, 「경희대학교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방향과 실제」, 『우리어문연구』 49집, 우리어문학회, 2014; 최규수,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을 한다는 것, 그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이화어문논집』 제36집, 이화어문학회, 2015; 임지원, 「대학 글쓰기 학습자의 내적 요인 탐색과 창의적 글쓰기 모색」, 『인문학연구』 98호,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김화선·이희영, 「대학 글쓰기교육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대학교양교육연구』, 제1권 제1호, 주시경교양교육연구

정도로 많은데, 그중에서도 수업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교육에 관한 논문들은 저마다 각 대학에서 실시한 글쓰기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것의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 글쓰기의 기본 과정, 학술적 글쓰기의 유용한 방안 및 적용 사례, 유형별 글쓰기의 방법,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의 효과 등 대학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에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 수업 방법 개발과 프로그램의 구체적 운영 내용, 글쓰기 교육의 평가 등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최근에는 수업의 주체이자 대상인 수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글쓰기 교육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글쓰기 수업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타당성 있는 분석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글쓰기 수업의 다양한 모델과 방법 적용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여전히 글쓰기 수업에 대한 거부감 또는 반감을 보이고 있다. 정희모는 대학 글쓰기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스스로 구성하는 구성주의 수업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한다. 이어 대학 글쓰기 수업의 교수·학습 원리로 책임이양의 원리, 상호작용의 원리, 자기구성의 원리를 제시한 다음, 이에 입각해 학생이 주축이 되어 활발한 피드백을 창출하고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여 생산해 낼 수 있는 수업 방식을 제안한다.²⁾ 물론 이 형태가 대학 수업에서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학습 환경과 교수자 재량에 달렸으나, 글쓰기 교재를 비롯한 글쓰기 수업은 학습자 즉, 수용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에서 진행한 <나를 바꾸는 글쓰기>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수용자 중심의 글쓰기 교육 효과를 살피고 글쓰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하나의 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소, 2016.

2)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재의 분석 및 평가 준거 연구』, 앞의 논문, 266-268쪽.

2. 교양교육 체제 속에서의 <나를 바꾸는 글쓰기>

현재 각 대학은 무엇보다 교양교육의 체제 개편에 고심하고 있는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제까지 글쓰기 교육 역시 그 체제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려 새롭게 부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그 부침을 계속해 왔다. 특히 ‘학술적 글쓰기’의 체계를 강의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대부분의 글쓰기 수업은 기존의 교과 목표에 실용성이라는 측면을 아울러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직면한 상황에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2015년 ACE 대학에 선정된 후, 교양교육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NOMAD 교육플랫폼 기반의 교양교육 체제를 완비하여 대학의 교육목표와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고려한 교양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글쓰기 교과목은 아르케기초교양에 편입되어 1학년 학생이 1학기 2학점(나를 바꾸는 글쓰기), 2학기 2학점(세상을 바꾸는 글쓰기) 총 4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글쓰기 교과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읽기, 쓰기와 말하기, 사고력 관련 기초역량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쓰기, 읽기, 말하기, 사고력의 분리 교육을 학년별, 단계별로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다. 현재, <나를 바꾸는 글쓰기>와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 교과는 사고력 측면에서 <비판적 사고>, <추리와 논증> 과목의 기초가 되며, 말하기와 듣기 측면에서는 <적극적 경청과 효과적 말하기>, 읽기 과목인 <아르케 독서 세미나>, 쓰기 과목인 <논증과 글쓰기>, <글쓰기로 가는 논리>와 상호연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학별로 개설된 기초 글쓰기 과목은 크게 ‘기초 글쓰기, 전공기반 글쓰기, 기초-심화 글쓰기’³⁾로 나눌 수 있는데, 부산외국어대학교의 경우는 1학기 글쓰기 기초, 2학기 글쓰기 심화로 나누어 글쓰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초-심화글쓰기’ 유형에

3) 김화선·이희영, 앞의 논문, 102쪽.

해당되는데, 기초 글쓰기 교육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학술적 글쓰기, 다양한 글쓰기로의 능동적 진입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한 것이다.

3. 수용자 중심의 <나를 바꾸는 글쓰기> 수업 사례

1) 교재 구성

글쓰기 수업의 바탕이 되는 교재는 글쓰기 관련 과목이 교양필수로 유지되고 또는 강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학 글쓰기 교재들은 과정 중심적 교재, 계열별 글쓰기 교재, 주제 중심적 교재, 논증적 추론 능력 계발 중심의 교재 등으로 나뉘는데,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⁴⁾ 부산외국어대학교는 ‘기초-심화 글쓰기’의 유형을 따르고 있는데 1학기에 운영되는 <나를 바꾸는 글쓰기>가 글쓰기의 기초에 해당된다면 2학기에 운영되는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는 글쓰기의 심화 단계로서, 1학기에 배운 글쓰기의 기초를 확장하는 글쓰기, 주체와 세계와의 고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글쓰기로 확장된 것이다. 따라서 교재 역시 이러한 연속성을 고려하여 편찬되었다.⁵⁾

교재 편찬 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실용적 목적에 입각한 글쓰기의 필요성을 느끼는 학습자를 위해, 이론과 실재를 조화시킨 교재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학생과 교수가 활발히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재를 만들 것을 고민한 후, 강의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 어울리는 교재에서 벗어나 수업 시간에 상호 소통하면서

4) 정선희, 앞의 논문, 189-208쪽.

5) 주요 대학에서 일찌감치 교재를 만들고 개정하면서 발전해 왔던 것과는 달리, 부산외국어대학교는 만오교양대학이 설립된 2015년에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2학기에 운영할 <세상을 바꾸는 글쓰기>를 먼저 편찬했으며, 이어 지난 2월, 2017년 1학기부터 사용할 <나를 바꾸는 글쓰기> 교재를 편찬했다.

글쓰기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재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이론과 실습의 조화를 위해 전반부에는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 후반부에는 글쓰기 실제 배치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글쓰기의 흥미를 자극하고 사고력을 확장시키며 학습자 활동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글쓰기 교육이 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전반부 글쓰기의 기초 부분에서는 기존 대학 글쓰기 교재와 유사하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되 맞춤법과 같은 어문 규정에 대한 내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독자중심의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글쓰기의 실제에서는 대학 학습핵심능력의 기초가 되는 요약하기, 논평 쓰기, 에세이 쓰기, 자기소개서 쓰기 네 영역을 선택, 읽기 자료를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카드 뉴스, TED, 유튜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보다 쉽게 사고하고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 교재의 예문 중에는 대학 1학년생들이 받아들이기에 지나치게 어렵거나 생소한 글들이 많아 학습자가 느끼는 글쓰기 부담감이 가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용자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문으로 내용을 구성했으며, 학생들이 요구하는 방식인 실습이 가능하도록 각 장 끝에 연습문제를 제시했고, 글을 쓰면서 참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나 동영상 자료, 책 등의 참고문헌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의 요구와 능력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론과 실제 부분 모두에서 2015년도 1학기과 2016년도 1학기에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실습한 글을 실례(잘된 글, 잘못된 글)로 제시하였다.⁶⁾

6) 실제 수업을 진행했을 당시 학생들은 ‘요약하기’에서 제시된 지문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용자 입장에서 교재 지문에 대한 이해도는 글쓰기 수업에 대한 흥미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기에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더 구체적으로 요구되며, 사후 설문조사 항목 구성 시 교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항목을 반영해야 하며 이 결과를 교재 개정 시에 참고해

<나를 바꾸는 글쓰기> 교재는 기존 대학 교재가 지니는 구성적 측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내용보다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글쓰기가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측면에서 요구되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전 계열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다음은 부산외국어대학에서 편찬한 <나를 바꾸는 글쓰기> 교재의 목차이다.

제1부 나를 바꾸는 글쓰기	1. 요약의 개념
제1장 사고와 글쓰기	2. 요약의 목적
1. 글쓰기 준비	3. 요약의 방법
2. 글과 생각	제2장 에세이 쓰기
3. 글과 삶	1. 에세이적 상상력
제2장 글쓰기의 힘	2. 논리적 글쓰기와 학술에세이
1. 왜 글을 쓰는가	3. 설득력 있는 에세이 쓰기를 위한 몇몇 지점들
2. 글과 말	4. 과학에세이 쓰기
3. 나를 바꾸는 글쓰기	제3장 칼럼 쓰기
제2부 글쓰기의 원리와 절차	1. 칼럼의 개념
제1장 글쓰기의 원리	2. 칼럼 쓰기를 위한 예비 작업
1. 글쓰기를 위한 전제	3. 매끄러운 칼럼 쓰기를 위한 전략
2. 글쓰기의 요소	4. 칼럼 읽고, 이어 쓰기
제2장 글쓰기의 절차	제4장 자기소개서 쓰기
1. 내용 생성하기	1. 자기소개서의 개념
2. 내용 작성하기	2. 잘못된 유형의 자기소개서
3. 내용 가다듬기	3. NCS를 위한 자기소개서
제3부 글쓰기의 실제	제4부 글쓰기 윤리
제1장 요약하기	*부록: 글쓰기 평가표, 어문규정, 글쓰기 튜터링 이용 안내

야 한다.

2) 교과목 개요 및 강좌 목표

<나를 바꾸는 글쓰기>는 1학년 1학기 교양필수로 설계된 과목으로서 한 분반 40명 기준, 주 2시간 수업으로 진행된다. 교과목 개요는 다음과 같다.

본 교과목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은 글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글쓰기의 원리 및 절차)들을 쉽게 훈련하고, 글쓰기 과정을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다양한 글을 써보는 훈련을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과 상관없이 글쓰기를 과제 이상의 것(자신의 문제)으로 여기고, 진지하게 지적 성찰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의식의 변화가 글쓰기 능력은 물론 대학 생활에서도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학생들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인재상인 노마드 역량(도전, 혁신, 융합, 나눔)을 개발하고 나아가 개인의식의 사회적 확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교과목의 개요를 제시한 이유는 그 동안의 대학 글쓰기 교육이 사회적·교육적 변화⁷⁾와 맞물리면서 변화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7)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계열별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인정하고, 해당 전공 학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글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인 전공기반 글쓰기 교육의 입장이 강화되었다. 이는 분과학문의 특성을 글쓰기 교육에 반영하고, 학술적 지식을 내면화하고 이를 표현하는 데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다시 계열 통합형 글쓰기 교육을 수감한 뒤 심화 글쓰기 교육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이는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쓰기 교육이 본격적인 학술적 글쓰기 장르로 진입하기 이전에 기초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글쓰기 교육이 기초 수준의 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글쓰기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게 되었다. 김희선·이희영, 앞의 논문, 102-103쪽 참조.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학술적 지식을 내면화하고 이를 표현하는 데에만 지나치게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강좌의 목표만 읽고도 느끼는 부담감이 크기에 강좌의 목표를 설정할 때, 글쓰기의 실질적 필요성과 더불어 학생들이 글쓰기를 진지하게 지적 성찰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의식의 변화가 글쓰기 능력은 물론 대학 생활에서도 도움을 준다는 생각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아울러 글쓰기 능력이 대학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인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중 하나임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세부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글쓰기가 텍스트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변화해 가는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글쓰기가 능동적인 자기계발의 한 측면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 (2) 글쓰기의 절차를 익히고 학술적 에세이를 작성하는 기초를 다진 후,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를 실습함으로써 학습핵심능력을 배양한다.
- (3) 학술적인 글쓰기와 실용적인 글쓰기를 병행하면서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력, 자기 표현능력을 기른다.
- (4)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사고력을 확장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접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수업 방향과 구성

현대 사회에서 글쓰기는 자신의 사상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의 습득과 주체의 내적 성찰과 반성적 사유를 가능케 함⁸⁾으로

8) 정희모, 『글쓰기 과목의 목표 설정과 학습 방안』, 『다매체 시대의 한국문학 I』,

써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하는 인문학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하기에 중·고등학교의 글쓰기 교육이 국민 공통 소양을 일깨우고 그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면, 대학 글쓰기는 그것을 바탕으로 대학 학문 공동체라는 특정 영역에서 소통되는 새로운 담론 생산 방식을 익힐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업 방향과 구성, 목적을 학생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 글쓰기는 일차적으로 학술적 글을 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술적 글쓰기가 요구하는 체계성과 논리성, 객관성과 구체성 등을 실제 글쓰기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써 보게 하여 대학 글쓰기에 감각적으로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용자의 수준을 미리 파악하고 수용자가 대학 글쓰기를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려해서 수업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입학 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반하여 수준별 글쓰기 수업을 진행⁹⁾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울러 수용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글쓰기 수업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연구자가 글쓰기는 사고력과 연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고력 확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학생들은 고전 읽기, 신문 읽기 등 텍스트 읽기를 통한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적 사고력 향상 등에 거부감을 보이기도 한다. 인터넷, 스마트 폰 등 입력과 출력이 빠르게 진행되는 매체에 익숙한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책을 읽게 하고 사고하도록 유도하며, 그 내

국학자료원, 2002, 190-191쪽.

9) 부산외국어대학교는 현재 수준별 글쓰기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년 이내에 수준별 글쓰기를 도입하겠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지향하는 교양교육의 체계와 목표에 맞게 글쓰기 교육의 지향점도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용을 글로 쓰도록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매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은 매체를 통한 수용과 생산 과정에 익숙한 교육을 받으며 대학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실용성과 생산성을 지님과 동시에 수용자에게 사회 문화에 대한 확장된 정보, 창의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글쓰기 전략을 위한 도구가 학생들에게 매우 용이할 가능성이 있다.¹⁰⁾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맞게 교수자 역시 사고력은 읽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매체 환경의 변화와 학생들의 수용 방식을 고려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학생들이 텍스트 읽기를 넘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부산외국어대학의 경우, 보고서,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 등을 써본 적이 없는 학생들¹¹⁾이 상당수 존재하고, 글쓰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다. 따라서 글쓰기 수업의 기본 전제를 '1) 글쓰기의 두려움 극복 2) 한 편의 글(학술적 글쓰기)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 3) 교수자 피드백 활용'으로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 교육 내용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① 비판적 사고 확장: 논점 파악/분석하기, 주장 해석/근거 파악
- ② 논리적 사고 확장: 자기 주장 세우기/근거 제시
- ③ 몰입과 성찰, 창의적 사고: 자기 탐색/사회적 문제의식 표현
- ④ 글쓰기 윤리의식 확장: 자료 찾기/출처 밝히기

결국, <나를 바꾸는 글쓰기> 수업 방향과 목적을 정리하면, 대학 글쓰기 수업은 학술적 글쓰기 방식을 익히고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점, 이러한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몰입과 성찰을 통한 자기 탐색으로부터 비롯되며, 의식의 변화와 맞물려 다양한 글쓰기로

10) 임지원, 앞의 논문, 357쪽.

11) 글쓰기 자가진단 및 설문 조사 실시 결과 총 312명의 학생 중 전문성을 갖춘 글을 단 한 번도 써 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228명이다.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사고 능력이 텍스트 읽기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넘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고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글쓰기로 이어지도록 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글쓰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4) 수업의 구체적 내용

부산외국어대학교는 2016년도 2학기부터 심화형 강의계획서¹²⁾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 진행과정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교수자 또한 수업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알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수업은 강의계획서를 기초로 하되, 첫 주에 실시한 글쓰기 자가 진단과 설문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에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수업은 다음과 같이 2차시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차시	교재의 각 장에서 공부할 글쓰기의 내용을 PPT를 이용하여 방법적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글쓰기의 이론과 절차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 및 시각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이를 사고력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을 유도한다.
2차시	전 시간에 습득한 이론과 방법을 토대로 각 장의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절차를 깨우치게 한다. 글쓰기의 원리, 방법, 유형 등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한 단락 쓰기 등을 실시하고 개별 피드백을 진행한다. 글쓰기의 절차가 끝난 이후 수업에서는 생각해 볼 문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한 줄 쓰기, 한 단락 쓰기, 주장과 근거 쓰기, 요약하기, 논평쓰기, 에세이 쓰기)로 이어지게 한다.

1주 수업의 초점은 강의계획서에서 밝힌 대로, 왜 대학에서 글쓰기를 배우는가에 대해 이해하고 글쓰기의 실질적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10) [붙임 1] 참고.

하는 데 있다. 자전거 탈 때, 수영을 배울 때 그 사람을 잡아 줄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글쓰기 역시 지도자의 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글쓰기 수업은 혼자 배우기 어려운 글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며, 글쓰기 교재는 자전거나 수영 초보자를 위한 기본 요령을 담은 핸드북이라고 생각하도록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글쓰기 수업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글쓰기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글쓰기 수업은 교수자 중심의 이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수용자의 실습이 중요하기에 수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인 학생이 글쓰기 수업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1주 수업에서는 연구자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자가진단을 통해 수용자가 현재 어느 수준의 글쓰기 실력을 지니고 있는지, 또한 글쓰기 수업에서 기대하는 점과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¹³⁾를 실시하였다.

글쓰기 자가진단¹⁴⁾의 항목은 크게 예비단계, 글쓰기 단계, 퇴고하기 단계로 나뉘며 총 20개¹⁵⁾로 구성되었다. 글쓰기 자가진단 결과 총 20점 만점 중 전체 학생의 70%에 해당하는 218명의 학생이 5점 미만이었으며, 5점과 10점 사이는 22%(69명), 10점 이상은 8%(25명)로 나타났다.¹⁶⁾

13)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17년도 1학기 <나를 바꾸는 글쓰기> 총 8반 총수강생 320명 중 첫 주 수업에 출석한 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4) 글쓰기 자가진단은 장미영의 『백지공포증이 있는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복오선, 2010)에 나오는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붙임 2] 참고. 보다 면밀하게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고 수준별 글쓰기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글쓰기 자가진단 항목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15) 한 항목에 1점을 부여하고 그 항목에 해당하면 체크하도록 하였다.

16) 글쓰기 자가진단은 학기 초와 학기 말 두 번 실시하였다. 보다 면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대별, 학과별 결과를 반영해서 유의미한 요소를 찾아야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은 학과별 수업을 진행하지 않기에 이는 다음으로 미룬다.

이 결과는 대학 신입생의 경우, 글쓰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절대적인 실습의 과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글을 쓰는 일이 왜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자가진단의 각 항목이 대학 글쓰기의 기초라 할 수 있는 학술적 글쓰기의 과정과 연계된다는 점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문조사의 경우, 객관식과 주관식 총 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¹⁷⁾ 설문조사 결과, 1번 ‘글쓰기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서는 ‘보통이다(33%, 102명), 그렇다(25%, 78명), 매우 그렇다(21%, 66명), 아니다(18%, 56명), 전혀 아니다(3%, 9명)’의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이 결과는 학생들 대부분 글쓰기의 필요성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글쓰기 수업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두 번째 설문항목인 ‘대학에서 필요한 글쓰기의 유형’에 대한 응답은 보고서(37%, 115명)→자기소개서(33%, 103명)→요약문(16%, 50명)→감상문(11%, 35명)→기타(3%, 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항목 ‘앞으로 잘 쓰고 싶은 글의 유형’에 대한 답변에는 자기소개서(52%, 162명)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보고서(35%, 109명)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글쓰기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글쓰기의 종류를 파악하고 실제 수업 진행시 이 부분의 실습을 강화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업 진행시 글을 쓰는 데 가장 흥미롭게 이용될 수 있는 매체

17) [붙임 3] 참고.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네 번째 질문에는 동영상(32%)이나 영화(35%) 등을 활용하는 글쓰기가 흥미로울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책(20%)과 신문기사(10), 기타(8%) 순이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정보를 접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영상 매체를 통한 빠른 지식 습득에 익숙해져 있음을 드러낸다. 아울러 자기 탐색을 통한 자유로운 글쓰기의 형태든, 학술적인 글쓰기든 내용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기존 텍스트 위주의 수업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의 매체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¹⁸⁾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항목에 대해서는 ‘글을 써 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 ‘왜 써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글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연스럽게 학기 초 글쓰기 수업의 방향을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 해소,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한 역설, 글을 쓰는 과정의 절차적 중요성 인지시키기, 글쓰기 실습 확대의 필요성으로 이어지도록 만든다.

글쓰기 자가진단 결과와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주차 수업부터는 수용자의 흥미를 높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매체와 텍스트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2주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 지니는 거부감과 글쓰기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을 경감시키고 자기 탐색에 대한 발판을 놓는 데 있었다.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 두려움과 거부감을 지니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글을 써야 하는 구체적 동기의 부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¹⁹⁾ 자기 효능감과 관련하여 불안이나 초조 등을 가진 필자는 집중

18) 임지원은 매체언어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 진행시 신문광고 한 컷, 영상광고 등을 활용하여 주제 찾기를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임지원, 앞의 논문, 365-366쪽.

19) 김정자는 글쓰기에 대한 동기와 집중력 부족 때문에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지닌다고 하였다. 김정자, 앞의 논문, 149-175쪽.

력이 부족하게 되고 개념과 개념을 제대로 연결 짓지 못해서 글을 쓰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을 덜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글쓰기에 대한 공포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지니고 있다는 점을 영화 <샤이닝>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영화는 소설가이자 산장의 겨울 관리인인 잭이 겨울 내내 쓴 소설의 내용이 단 한 문장, “놀지 않고 일만 하면 바보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글쓰기는 전문가도 어려움을 느끼므로 초보자인 학생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흰색 종이의 공포를 넘어서기 위한 각자만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였다. 또한 김영하 작가의 ‘자기해방의 글쓰기(세상을 바꾸는 십오분)’ 강연을 보여주면서 글이 지니는 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자기 탐색을 위한 한 줄 글쓰기²⁰⁾를 진행하였다.

3주 수업의 목표는 어휘와 문장 쓰기의 기본기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글은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한 글자 한 글자씩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내 안에 숨겨진 언어를 꺼내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는 것 자체, 단어의 배열, 문장 간의 결합을 유기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적 사고가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의 잘못된 쓰임은 TV프로그램이나 영화 자막 등을 통해 그 오류 양상을 보여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퀴즈식으로 문제를 제시한 다음, 그것을 맞추도록 한 후 왜 그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표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론 수업을 병행하였다. 맞춤법과 띄어쓰기, 올바른 문장을 쓰는 데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면 학생들이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한

20)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성격, 취미, 외모, 특기, 특징 등) 열 개 쓰기, 다섯 개 쓰기, 한 개 쓰기, 한 단어를 넣어 한 문장 완성하기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이후 자기소개서를 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추후 자기소개서 작성 시간에 이것을 나누어 준 후, 자기 연보 작성, 인생 그래프 작성 시 활용하도록 했다.

문장이라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후, 그 이후에 맞춤법검사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큰소리로 읽어 보면서 문장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어 부담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분명히 할 점 중에 하나는 글쓰기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 생각이 적절한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 주어 학생들이 스스로 단어와 문장을 표현하는 데 관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4주 수업의 목표는 한 단락 쓰기를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독자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데만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단락을 쓸 때 강조할 점은 바로 독자중심 글쓰기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일단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2주와 3주의 수업 목표였다면 4주차는 그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펼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습문제에 실린 한 단락(주장+근거) 쓰기를 실시한 후에 개별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논점이 분명한지, 내용을 숙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빠진 내용이 없는지, 내용이 매끄럽게 이어지는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큰소리로 읽어 보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글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5주차 수업의 진행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²¹⁾ 5주차 수업은 글쓰기의 과정 중 내용생성하기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에게 글쓰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여러 학생이 컴퓨터부터 켜다고 말한다. 물론 글쓰기의 일반적인 절차와 과정은

21) 이 논문에서는 5주차와 13주차 자기소개서의 수업진행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고 답변한 항목이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실질적인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글쓰기의 종류가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교재에 실려 있다. 하지만 수행평가를 대신하는 글쓰기에 집중한 나머지 학생들은 글쓰기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글을 쓰는 경우가 있고, 글쓰기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고자 인터넷을 검색한다. 따라서 이때 수업에서는 글쓰기가 체계적인 순서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그 과정 자체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과정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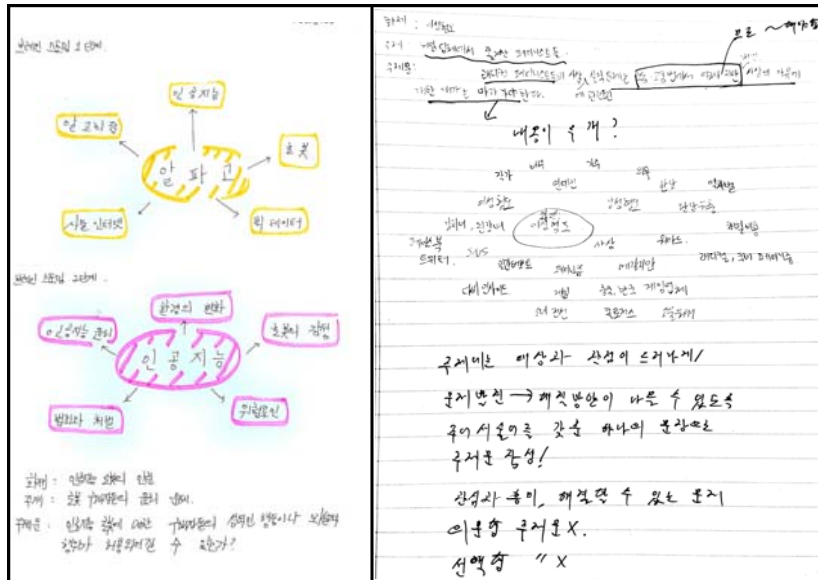
학습 단계:	글쓰기의 절차 1-내용 생성하기	
학습 목표	글쓰기의 기본 과정이 요리를 하는 과정과 유사함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글을 쓸 때 가장 소홀히 하는 내용 생성하기의 중요성을 인지한 후, 화제를 좁혀 주제를 찾아내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과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 학술적 에세이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다.	
학습 과정	과정	실습과 피드백
도입: 관심 유발	‘집밥 백선생’ 프로그램 보여주기	백 선생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떤 과정으로 요리하는지 질문하기
전개: 이론 수업 및 활동	‘국수 만들기’라는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요리와 글쓰기의 유사점 설명 글쓰기의 각 단계에 대한 이론 설명을 진행하면서 글쓰기의 절차를 숙지하도록 함. 단계별 잘된 예/ 잘못된 예 제시	적극적 경청과 질문하기(한 단계가 완료된 다음에 어떤 단계가 와야 하는지 예측해서 말하기)
마무리: 실습	방법 확인하고 점검하기: 화제 제시→ 브레인스토밍(마인드 맵) → 주제 정하기→ 주제문 쓰기	연습문제와 나와 있는 핵심어 중 하나를 택해 브레인스토밍을 한 후 주제와 주제문 쓰기 활동(스마트 폰 활용 가능) ↓ 이때 정한 주제와 주제문은 이후 수업 진행(자료 수집, 개요 작성, 본문 쓰기, 고쳐 쓰기) 시 그대로 활용

수업 진행시 도입부에서는 ‘집밥 백선생’이라는 프로그램을 1분씩 편집한 영상을 하나씩 보면서 요리를 할 때 백 선생이 무엇에 집중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요리를 하는지 질문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였다. 또한 백 선생 제자들이 잘못 만든 음식과 백 선생이 만든 요리의 차이점을 파악해 보라고 유도하였다. 그런 후에 영상에 나오는 중요 내용을 읽기 자료와 연결시켜 글쓰기의 절차를 자연스럽게 숙지하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틀려도 좋으니 무조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쓸거리를 정하는 다양한 방식(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항목 구체화하기 등)에 대한 설명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잘된 예와 잘못된 예를 제시하여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습을 진행할 때에 제시하는 핵심어는 학생들이 현재 관심이 있는 대상을 선택하도록 해야 학생들이 느끼는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압박감을 떨치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교수자 중심의 이론 수업을 최소화하고, 학습자가 가장 익숙하게 접하는 매체를 택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방식, 즉, 학습자와 교수자가 활발히 소통한 후에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기존 수업 방식보다 딱딱하지 않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관심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글쓰기의 다양한 실재를 직접 확인하고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상황과 주제가 제시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글을 구상하여 써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

다음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진행한 마인드맵²²⁾과 교수자 피드백의 구체적 예이다.

22) 내용을 생성하기 위한 단계에서는 마인드 맵, 브레인스토밍, 클러스터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내용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의미적 연관성에 따라 내용을 묶을 수 있도록 팁을 주어야 한다.



글쓰기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만한 키워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한 후 화제에서 주제를 구체화하고 주제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주제를 찾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했지만 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 즉 대상을 고른 후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학술적 에세이의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으며 여러 번에 걸쳐 주제를 수정해야 했다. 따라서 교수자는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텍스트 읽기와 분석, 사고력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진행했으며, 배경지식의 확장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관심을 사고력으로 이어지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주제와 주제문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기말 리포트의 주제와 주제문을 최종 확정하여 그 다음 단계의 글쓰기 절차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학생들은 이처럼 내용생성하기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글쓰기 과정에 돌입하는데, 이때 생성한 주제와 주제문은 그 이후 수업 진행시, 자료 수

집, 개요 작성, 본문 쓰기로 이어지고 학생들은 한 편의 학술적 에세이를 쓰는 과정을 실습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글쓰기의 절차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물론, 글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다.

다음은 13주차 수업 자기소개서 작성하기의 수업 내용이다. 학생들이 가장 잘 쓰고 싶어 하는 글은 학기 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소개서이다.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 쓰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자기의 이야기를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진술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다. 13차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학습 단계: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	
학습 목표	자기소개서가 개성을 드러내 독자를 유혹하여 자신을 팔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소통의 매개체임을 인식한다. NCS 자기소개서의 구체적 항목을 이해하여 자기소개서를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 쓰기에 앞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학습 과정	내용	실습 및 피드백
도입: 관심 유발	개성적인 SNS 프로필 보여주기 ²³⁾ 그 사람이 상품이라면 사고 싶은지 질문하기 학생이 쓴 자기 연보와 작가가 쓴 자기연보 예 제시	자기 연보 작성하기: 무조건 재미있게 쓰기,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핵심어 찾기, 잊을 수 없는 사건을 찾아 그때 자신의 모습을 한 줄로 표현하기, 자기 연보를 읽어 보며 성장과정, 성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 능력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 특별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 찾기
전개: 이론 수업 및 활동	이론 수업: NCS 자기소개서 항목 소개, 뽑히는 자기소개서와 점수를 까먹는 자기소개서 유형 제시	미래 인생 그래프 그리기: 미래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일은 나를 설득하는 작업-미래의 꿈, 목표, 지원 회사, 포부 등의 항목과 연결

마무리: 실습	자기 연보와 미래 인생 그래프 그리기를 통해 찾은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 연결하기	NCS 자기소개서 항목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은 다음,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 작성 -> 개별 피드백 실시
------------	---	--

자기소개서는 '자기'에 대한 글이지만 학생들은 사실 '자기'를 객관화시켜 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이 주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독특하고 개성적으로 자신만의 프로필 문구를 작성한 예를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하도록 하였다. 이때 강조할 점은 프로필 문구가 자신을 핵심적으로 드러내는 자기소개서의 소재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홍보를 통한 유혹'임을 강조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기에 앞서 자기를 재미있게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론 수업을 진행할 때는 NCS 자기소개서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항목을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뽑히는 자기소개서와 점수를 까먹는 자기소개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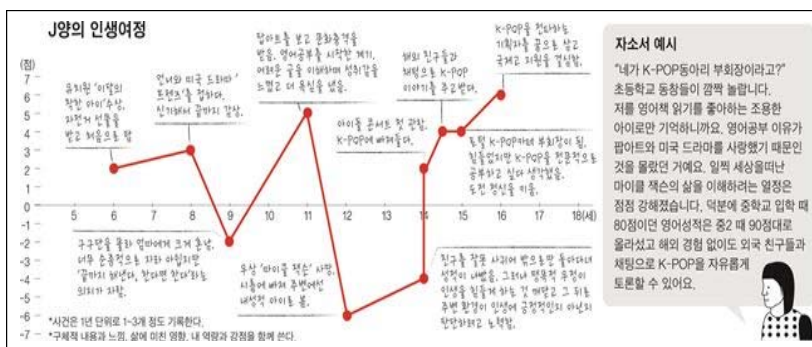
이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자기소개서도 글쓰기의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얻어지는 객관적인 글쓰기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탐색이라는 사고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신을 객관화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연보를 작성하고 미래 인생 그래프 그리기를 실습하도록 하였다. 자기연보를 작성한 다음에는 그것을 훑어보면서 과거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자기소개서의 어떤 항목과 연결시킬

23) 최근 JTBC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이론상 완벽한 남자>를 보여준 후, 자신을 탐색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나오는 질문 내용처럼 동일한 질문지를 만든 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 보고 자신을 파악해 보라고 하는 방법도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유도하였다. 또한 미래 인생 그래프 그리기는 미래에 자신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에게 공약을 걸고 그걸 실천하기 위한 발자취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시켰다. 그리고 30대 때, 40대 때 하고 있는 일이 현재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것이므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지원 분야나 지원 동기, 미래의 포부를 쓰는 항목과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자기연보와 미래 인생 그래프에서 찾은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NCS 자기소개서 항목에 맞게 가상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라는 과제를 출제했다. 자기소개서의 추상적 진술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화된 근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해봄으로써 자기소개서 역시 자신을 주장하는 글임을 확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제출된 과제는 교수자가 첨삭을 진행한 후에 학생들과 개별 면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한 결과, 자기소개를 작성할 때 학생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바로 나열식으로 자기의 삶을 나열한다는 점이다. 많은 내용을 나열해야만 자기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열된 내용 중 가장 특이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 스스로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선택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도록 한 다음에 스토리텔링할 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조언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학생들은 꾸지람이나 비난을 들으려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무조건 글에서 칭찬할 만한 점을 찾아 언급하고 이 피드백이 조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수업 시간에 활용한 인생 그래프 예, 출처: 《한국일보》, 2015. 4. 7.]

총괄

- 본격적으로 내용을 풍부하게 구성하려고 한 점이 좋습니다.
- 자기소개서란 학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글이 아니므로 학생의 현재 느끼는 감정과 상황 등을 간략하게 잘 드러냈습니다.
-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할 것 같아 걱정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학생의 '경험을 중심으로 보다'보다는 학생의 '삶의 이력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쓴 점은 칭찬하지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학생은 글이 잘 쓰이기 위해 소문세 살피는 나이에 부산외국어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이유로 학생의 경험은 두꺼울 것이 도전하는 용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게 학생의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위한 두 내용을 구성해 달 것을 바랍니다.
- 이러한 글의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아 전체적으로 추상적인 인상을 줍니다. 즉, 나의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글이지만, 그래도 어떤 직업 또는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싶냐고 구체적으로 밝혀달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전체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문장을 길게만 쓰거나 두 문장을 연결할 때 약한 부연이 있으면서도, 개성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소재가 부족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 한 페이지 분량 작성 과제였습니다.)

자소서 100점 만점 기준

자소서 90점 만점 기준

자소서 80점 만점 기준

자소서 70점 만점 기준

자소서 60점 만점 기준

자소서 50점 만점 기준

자소서 40점 만점 기준

자소서 30점 만점 기준

자소서 20점 만점 기준

자소서 10점 만점 기준

자소서 0점 만점 기준

[자기소개서 첨삭 예]

4. 수용자 중심의 글쓰기 교육 효과

<나를 바꾸는 글쓰기> 한 학기 수업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1주차에 실시했던 글쓰기 자가진단을 다시 진행했다.24) 그 결과 학기 초 평균 5점 안팎에 머물렀던 점수가 평균 14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학생

24) 학기 말 글쓰기 자가진단과 설문조사에 응한 학생은 총 278명이다.

들이 글쓰기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일정 수준 획득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주며, 적어도 글을 쓰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기 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학기 초보다 사라졌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느낀다고 답변한 학생은 23%였다. 또한 글쓰기의 단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는 ‘문장 쓰기 및 단락 쓰기’와 ‘주제 정하기’가 어렵다고 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왔다. 어떤 매체를 통해 수업을 진행했을 때가 가장 흥미로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0%가 넘는 학생이 동영상 활용했을 때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은 책, 영화, 신문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식 습득과 사고력 향상의 매개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일이 글쓰기 수업의 핵심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다른 텍스트들과는 달리 동영상 매체가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텍스트에 대한 분량과 글에 대한 밀도 높은 분석에 대해 압박을 느끼는 것과는 달리, 짧은 텍스트와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대한 분석은 재미 요소를 더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연결고리를 빠르게 만들어 내는 흥미유발에 주요점을 갖고 있다²⁵⁾는 지적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주관식 문항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실습을 한 결과 글쓰기의 과정을 이해했고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었다, 글쓰기 수업이 딱딱 할 것이라는 편견을 깼다,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또 ‘잘된 글과 잘못된 글을 비교하면서 보여줘서 글을 무조건 잘 쓰려고 하기보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답변도 소수 나왔다. ‘동영상을 자주 보여줘서 수업에 흥미가 생겼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게 왜 중요한지 인식하였다, 학술적 에세이 쓰기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25) 임지원, 앞의 논문, 366쪽.

했다, 글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자기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 답변도 있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자기 연보와 미래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자신을 탐색한 후 스토리텔링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답변도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수용자 중심의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수용자 중심의 글쓰기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존 텍스트 위주의 실습과 사고력 향상에만 집중하는 수업을 벗어나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되, 텍스트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텍스트 읽기와 연계하여 사고력 확장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학생 수준을 고려한 연습 문제를 제시하여 학기 초에는 짧은 글 위주로 실습을 진행하고, 실습 이후에는 교수자가 반드시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쓴 글의 문제를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 학생들 스스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나오며

지금까지 부산외국어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를 바꾸는 글쓰기> 수업을 통해 수용자 중심의 글쓰기 교육 방향과 실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은 글쓰기의 기본 능력이나 관심도에서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의 수준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는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별(또는 학과별)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대학의 많은 교수자가 공통으로 절감하는 어려움일 것이다. 수용자 중심의 수업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분석과 해석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안 마련, 분반 구성과 수강 인원의 제한, 첨삭 또는 피드백의 제도화, 토론 방식의 도입 등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기 초 글쓰기 진단 프로그램을 정교화하고 수준별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다면 보다 더 면밀한 수용자 중심의 글쓰기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수준과 수용자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글쓰기 수업 방식이나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연구자가 제시한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만, 텍스트 읽기와 연계한 글쓰기 수업을 넘어서 수용자가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 즉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것, 글쓰기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실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개별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글의 문제를 진단하고 점검한 후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상호 접촉성을 높여 소통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글쓰기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옥영,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어문학교육』 42, 한국어문교육학회, 2011, 45-75쪽.
- 김정자,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태도 연구」, 『국어교육학 연구』 13호, 국어교육학회, 2001, 175-197쪽.
- 김화선·이희영, 「대학 글쓰기교육의 현황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대학교양교육연구』 제1권 제1호,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2016. 12, 93-114쪽.
- 나은미, 「대학 글쓰기 교육 연구 검토 및 제언」, 『대학작문』 창간호, 대학작문학회, 2010, 69-92쪽.
- 박은미, 「건국대 글쓰기 영역 수업 사례 연구」, 『사고와 표현』 2집 1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9, 155-172쪽.
- 박정하, 「학술적 글쓰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양논총』 1, 중앙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2010, 7-39쪽.
- 오태호, 「경희대학교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방향과 실제」, 『우리어문연구』 49집, 우리어문학회, 2014, 387-421쪽.
- 원만희,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의 위상과 ‘학술적 글쓰기’ 모델」, 『철학과 현실』 65, 철학문화연구소, 2005, 120-137쪽.
- 원진숙, 「대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 신장을 위한 작문교육방법」, 『어문논집』 51, 민족어문학회, 2005, 55-86쪽.
- 이은주, 「대학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예술대 글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26집, 이화어문학회, 2008, 149-166쪽.
- 임지원, 「대학 글쓰기 학습자의 내적 요인 탐색과 창의적 글쓰기 모색」, 『인문학연구』 98호, 충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351-380쪽.
- 장미영, 『백지공포증이 있는 대학생을 위한 글쓰기』, 북오션, 2010.
- 정선희, 「대학 글쓰기 교재 분석과 개선방안」, 『이화어문논집』 제26집,

- 이화어문학회, 2006, 189-208쪽.
- 정혜영, 「대학의 교양교육과 학술적 글쓰기」, 『현대문학이론연구』 37,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337-356쪽.
- 정희모, 「글쓰기 과목의 목표 설정과 학습 방안」, 『다매체 시대의 한국 문학 I』, 국학자료원, 2002, 181-204쪽.
- _____, 「대학 글쓰기 교재의 분석 및 평가 준거 연구」, 『국어국문학』 148호, 국어국문학회, 2008, 243-277쪽.
- 정희모 외, 『대학 글쓰기』, 삼인, 2008.
- 정희모, 「대학 글쓰기의 교육 목표와 글쓰기 교재」, 『대학작문』 창간호, 대학작문학회, 2010, 41-68쪽.
- 지현배, 「글쓰기 침식지도의 실태와 수강생의 반응 분석」, 『대학작문』 2호, 대학작문학회, 2011, 135-163쪽.
- _____, 「대학 글쓰기 강좌의 개선을 위한 교재와 강의안 구성 시론」,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125-151쪽.
- 최규수,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을 한다는 것, 그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이화어문논집』 제36집, 이화어문학회, 2015, 29-49쪽.
- 한수영, 「대학 글쓰기에서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방법과 성과-이화여자대학교 <우리말과 쓰기>를 중심으로」, 『대학작문』 창간호, 대학작문학회, 2010, 187-220쪽.

<Abstract>

Reality and Direction of Learner-oriented
Writing Education
- Focusing on the case of writing class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im, Min-OK*

Writing classes done in almost every college after 2000s have strengthened the basics of college education by presenting numerous models in various forms. Nevertheless, writing models that are applicable and suitable for Korea's education situation and students' levels have kept facing limit. This means writing instructors in colleges seriously contemplate educational methods suitable for colleges' situation and students' level.

Especially they try to perform student-oriented writing instructions, but students still feel against writing classes, and there is lack of valid analysis on specific effects of writing classes.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learner-oriented writing education based on the case of <Writing That Changes Me> don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learner-oriented writing education through ultimate direction and specific methods of lecture that writing education should pursue.

To pursue learner-oriented writing, it is necessary to perform

*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lf-diagnosis of writing for measurement of students' levels at the first week and the last week of course. Through preliminary survey, students' levels should be measured, and the plan and purpose of the course should be clarified. Through post-survey, students should comprehend their own writing ability improvement,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should be analyzed.

In the actual class, it is effective to improve students' class concentration by using videos about text subjects rather than limiting the methods of improving thinking ability within text reading, and to induce students' active class participation by connecting video utilization with text reading to expand thinking ability. It is also effective to perform short writing practice using exercises in the beginning of semesters and to make students confirm their improvement of writing ability as instructors give feedback after the practice, so that students can realize problems of their writing.

Key Words: Writing That Changes Me, Learner-Oriented Writing, Text, video, Writing Self-Diagnosis, Measurement of Students' Levels, Feedback

■ 논문접수 : 2018년 3월 20일

■ 심사완료 : 2018년 4월 9일

■ 게재 확정 : 2018년 4월 13일

[붙임 1]

〈나를 바꾸는 글쓰기〉 강의계획서

주	강 의 내 용	수업 방법
1	교과목 및 강의 진행 방법 소개, 글쓰기 자가 진단 실시	강의 및 실습 동영상, 설문지 활용 -글쓰기 자가진 단- -설문조사-
	왜 대학에서 글쓰기를 배우는가에 대해 이해하고 글쓰기의 실질적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자전거 탈 때, 수영을 배울 때 그 사람을 잡아 줄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글쓰기 역시 지도자의 힘이 필요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글쓰기 수업은 혼자 배우기 어려운 글쓰기에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며 글쓰기 교재는 자전거나 수영 초보자를 위한 기본 요령을 담은 핸드북이라고 생각하도록 한다.)	
2	생각의 힘을 기르고 글쓰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강의 및 실습: ‘나에게 글쓰기란 000이다’ ‘나를 탐색하여 한 줄로 표현하 기’
	글쓰기에서 생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하고, 백색 종 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3	구슬 서 말을 꿰는 힘! 글쓰기의 원리: 어휘, 문장, 문단	강의 및 실습 동영상 -연습문제 풀이- -한 단락 쓰기- -개별 피드백-
	글쓰기의 기본 원리인 어휘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문장을 쓰는 방법을 익히며, 단락 구성의 원리와 방법을 체계화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4	글의 고리와 짜임: 글쓰기의 절차 1: 내용 생성하기	강의 및 실습 동영상 -딤브레인스토밍 을 통해 화제 좁 히고 주제 정하 기- -개별 피드백-
	글쓰기의 기본 과정이 요리를 하는 과정과 유사함을 이해하고 학생 들이 글을 쓸 때 가장 소홀히 하는 내용 생성하기의 중요성을 인지 한 후, 화제를 좁혀 주제를 찾아내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과 그것 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 보고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다.	

5	글의 고리와 짜임: 글쓰기의 절차 2: 내용 작성하기	강의 및 실습 -예화를 활용한 글의 도입부 작성- -개별 피드백-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서론 쓰기, 논리적으로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본론 쓰기, 임팩트 있게 마무리하는 결론 쓰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익혀 다양한 글쓰기의 유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6	글의 고리와 짜임: 글쓰기의 절차 3: 내용 가다듬기	강의 및 실습 -전 시간 도입부 작성한 내용 가 다듬기- -학습자 상호평 가-
	내용 가다듬기의 구체적인 방법을 익히고 퇴고를 통해 글이 다시 태어날 수 이해하며, 퇴고를 할 때 필요한 능력이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태도임을 이해할 수 있다.	
7	글쓰기의 실제-단계별 글쓰기 1: 요약하기-어떻게 핵심을 찾을 것인가?	강의 및 실습 -테스트 요약- -개별 피드백-
	단계별 글쓰기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요약하기의 두 가지 방법을 익힘으로써,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고 논리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학습핵심능력을 기를 수 있다.	
8	중간고사	
9	글쓰기의 실제-단계별 글쓰기 2: 논평 쓰기 1-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강의 및 실습 동영상 활용 -논평 읽고 주장 과 근거 찾기-
	'그는 유죄인 까닭은'이라는 동영상과 보고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며, 비판적 사고를 가장 잘 드러내는 논평 자료를 읽음으로써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찾는 연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10	글쓰기의 실제-단계별 글쓰기 2: 논평 쓰기 2-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강의 및 실습 논평 작성 및 -개별 피드백-
	논평을 작성하는 지침을 이해하고 비판적 텍스트 읽기를 통해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찾아 그를 논박하는 논평을 써 봄으로써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독자를 설득할 수 있다.	

11	글쓰기의 실제-단계별 글쓰기 3: 에세이 쓰기 1: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강의 및 실습 -보고서 초안 작성- -개별 피드백-
	설득력 있는 에세이 쓰기를 위한 몇몇 지점들을 이해하고, 논평 쓰기를 바탕으로 확장된 비판적 사고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학습 핵심능력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학술적 에세이(논리적 글쓰기)를 쓸 수 있다.	
12	글쓰기의 실제-단계별 글쓰기 3: 에세이 쓰기 2: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강의 및 실습 -영화 에세이, 독서 에세이 쓰기- -개별 피드백-
	에세이적 상상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자유로운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 세계에 대하여 폭과 깊이를 추구하는 에세이를 쓸 수 있다.	
13	글쓰기의 실제-자기소개서 쓰기: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	강의 및 실습 -자기연보 작성하기, 미래 인생 그래프 그리기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하기 -개별 피드백-
	자기소개서도 소통의 한 매개체임을 인식하고 잘못된 유형의 자기소개서를 확인해 봄으로써 자기소개서를 쓸 때 피해야 할 점을 파악하며, NCS 자기소개서의 구체적 항목을 이해하여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다.	
14	글쓰기 윤리 교육: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가 아니다.	강의 및 동영상 활용
	글쓰기 윤리가 왜 필요한지 인식하고 표절의 유형과 사례를 통해 표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깨달을 수 있으며 올바른 인용법을 익힐 수 있다.	
15	보강 주간	글쓰기 자가진단 설문조사
16	기말고사	

[붙임 2]

글쓰기 자가 진단

[유형 1]

구분	번호	질문	체크
예비 단계	1	글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다.	
	2	자기 글의 독자가 누구지 미리 생각한다.	
	3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다.	
	4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꾸준히 메모한다.	
	5	자신의 경험을 글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애쓴다.	
	6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7	직접 쓰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8	모인 자료와 메모를 검토하고 분류할 줄 안다.	
글쓰기	9	글을 쓰기 전에 글의 전체적인 개요를 짠다.	
	10	전체 흐름에 따라 초고 형태로 미리 써 본다.	
	11	빨리 시작하고 천천히 마무리한다.	
퇴고 하기	12	초고를 완성한 후에는 고쳐쓰기를 한다.	
	13	세부적인 내용보다 전체적인 유기적 관계를 먼저 검토한다.	
	14	소리 내어 읽으면서 수정한다.	
	15	문장의 리듬은 물론 글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생각한다.	
	16	맞춤법, 어휘, 문장, 단락의 관계와 통일성 등을 염두에 두면서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찾는다.	
	17	제목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18	글자 크기와 모양, 여백, 줄과 행의 간격 등 편집 디자인을 고려 한다.	
	19	다른 사람에게 내 글을 읽어보도록 한다.	
	20	다른 사람의 조언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 나의 글쓰기 점수는? 1) 15개 이상: 당신은 이미 글쓰기 준비가 충분한 상태이다. 지금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연습한다면 능숙하게 글을 쓸 수 있다. 2) 10개 이상 ~ 15개 미만: 당신은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방법적인 면만 보완하면 된다. 주어진 과제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써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3) 5개 이상 ~ 10개 미만: 당신은 글쓰기를 위한 기초 작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글쓰기는 마음만 가지고 잘 쓸 수 없다.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 4) 5개 미만: 당신은 글쓰기 준비가 부족하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확인한 후, 전체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확인하고 시작해야 한다.			

[붙임 3]

〈나를 바꾸는 글쓰기〉 학기 초 설문조사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내용	리포트	자기 소개서	감상문	요약문	기타
대학에서 꼭 필요한 글쓰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내용	리포트	자기 소개서	감상문	요약문	기타
본인이 잘 쓰고 싶은 글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내용	책	인터넷 동영상	영화	신문 기사	기타
다음 매체 언어 중 무엇을 활용하여 글쓰기를 할 때 가장 흥미가 생길까요?					
내용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	왜 써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글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글쓰기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글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이 수업에서 얻기를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서술해 주십시오.
2.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써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붙임 4]

〈나를 바꾸는 글쓰기〉 학기 말 설문조사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이 수업은 나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내용	리포트	자기 소개서	감상문	요약문	기타
글쓰기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내용	주제 정하기	자료수집 하기	본문 쓰기	고쳐 쓰기	인용 하기
글쓰기의 단계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내용	책	인터넷 동영상	영화	신문 기사	기타
어떤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했을 때 가장 흥미가 생겼나요?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나는 아직도 글쓰기가 두렵다.					

1. 이 수업을 통해 얻게 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2.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변화된 점은 무엇인지 서술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